

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조사 (경산성)

- 경산성은 26일,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
 - 생산거점 피해를 입은 제조업 가운데 60%이상이 이미 생산을 재개하였고, 남은 기업들도 여름까지는 거의 복구될 전망인 것으로 조사
 - 소재, 가공 업종에서는 80%이상의 기업이 거래처 피해로 인해 원재료나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, 대체 조달처를 확보를 통해 현상을 극복하려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
- * 경산성은 “부품조달 문제 해결은 가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” 라고 강조

□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4월 8일~15일
- 대상기업 : 80사(제조업55사, 소매·서비스 25사)

□ 제조업의 산업실태

- 피해지역 생산거점 복구전망
 - 피해지역의 생산거점 약 60% 이상이 복구되었고 남은 약 30%의 기업들도 여름까지는 복구될 전망이다
 - * 업종별로는 소재업종이 67%, 가공업종이 58%가 「복구완료」라고 응답. 「여름까지 복구」라고 응답했던 기업은 소재가 20%, 가공이 38%, 합계 90%로 생산거점은 여름까지 복구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. 불투명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7%정도 있었음

○ 자사 공급망에 대한 영향(조달처 피해상황 파악)

- 공급망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1주일 걸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재 65%, 가공 37%이었음
- * 2주가 걸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재 32%, 가공 37%이었고, 3주에서 4주이상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던 기업도 소재 6%, 가공 26%나 됨

○ 원자재, 부품·소재 조달이 어려운 배경

- ‘1차 조달처의 피해’와 ‘2-3차 조달처의 피해’가 원인 것으로 분석
 - 1차 조달처 피해: 소재기업 88%, 가공기업 82%
 - 2-3차 조달처 피해: 소재기업 42%, 가공기업 90%
 - 계획정전의 영향: 가공기업 50%

○ 원자재, 부품·소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기

- 원자재나 부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△소재 85%, △가공 71%가 「10월까지는 해소」될 것이라고 응답
 - ‘조달처가 있다’고 응답했던 기업이 소재 76%, 가공 65%였으나, ‘모른다’라고 응답한 기업도 존재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 약 80%가 부품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 지진으로 계기로 일본기업은 부품소재의 조달처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음
 -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피해와 BCP(사업연속계획)에 관련된 논의가 일본에서 활발해 질 전망. 일본의 해외생산이나 BCP의 국제화전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
- 한일공동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산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
 -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기술기반이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 BCP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

〈자료〉 經濟産業省「東日本大震災の産業実態調査」(11.04.26)